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 ... 역사의 물줄기 바꿨다

한국 정치의 방향타

호남의 선택은 한국 현대사와 정치의 방향타가 되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호남은 영남 패권주의에 대항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극우보수 세력과 영남패권세력이 권력을 누리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할 때 호남은 타협하지 않고 이에 대항해 왔고 이를 위해 호남에서 주도적으로 정치세력을 만들어 왔다. 이 때문에 야권의 심장으로서 불려왔다. 반대세력이 호남에 대해 지역주의로 매도하고 심지어는 혐오감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호남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호남은 이 같은 역할을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숙명처럼 맡아왔다. 민주가 짓밟히고 온 국토가 숨죽인 상황에서 호남은 분연히 일어났고 이후에도 군부정치세력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 호남 정치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다.

1987년 직선제 쟁취 후에도 군부정치세력

5·18, 6월 항쟁... 민주화 이끈 야권의 심장

김대중·노무현 정권 창출 ... 개혁 주도세력으로

은 영남과 호남을 분리, 호남정치를 지역주의로 매도했고 때로는 옹공조작까지 마다하지 않았지만 호남은 쓰러지지 않고 맞섰다.

이에 보수세력과 영남패권세력은 1990년 1월 3당 합당을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제2야당 통일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통합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것이다. 이는 보수세력이 영남과 충청 정치권을 흡수, 호남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자 보수세력의 영구집권 음모였다는 게 당시 정치권의 정설이었다.

하지만, 이어 벌어진 1992년 대선에서 비록 영남정치세력이긴 하나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온 나라가 개혁의 도가니 속에서 들끓었고 민주화 조지들이 하나 둘 이뤄져 갔다. 물론 그럼에도 호남정치권은 소수자로 지켜보아야 하는 상

황이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진 후에 치러진 1997년 대선에서 호남정치는 꽃을 피웠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은 민주화와 개혁의 주도세력으로서 호남의 정신이 이뤄낸 거대한 성과였다.

호남은 진보세력에 정권 재창출도 선뎠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2002년 3월 광주 경선 승리의 결과물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탄생은 또 한번 호남을 고립시키고 호남정치를 번두리로 내몰았다. 열린우리당의 탄생은 호남정치를 영남의 패권주의와 같은 지역주의 정도로 왜곡 해석한 결과였다. 호남의 지지를 받아온 정치세력이 정작 호남정치의 가치와 위상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 특검 수용은 물론 호남 배제 인사 등을 넘어 한나라당과의 연정까지

제안하기에 이른다.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또다시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때문에 호남은 스스로 만든 정권인 참여정부에 극렬히 저항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 실시된 총선을 제외한 모든 호남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호남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정권 창출을 위해 참여정부 세력인 친노(친노무현)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호남의 단순한 이익보다 호남의 정신을 실현해줄지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호남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당내 민주주의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호남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졌고 친노계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도 결국 물러났다. 이처럼 호남은 우리 정치권에 특히 야당에게는 방향타 역할을 해온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문가 진단



박상철

4·13 총선 광주·전남의 정치시장에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을 것인가. 가장 궁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다. 그런데 어떤 상품, 즉 어떤 정당을 고를지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국민의당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겠고, 더민주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간판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야 해서 말이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호남정치에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주고 있다. 과거 문 전 대표는 호남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간파하고 있었고 새정치연합 일색의 깃발이 꽂혀있는 호남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과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호남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수권야당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자긍심과 절대 다수당의 호남지역 발전의 실용적 기대감을 외면하고 있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당권과 대권에는 열정이 없고 공천과 자기 지역구의 정치에 몰두하면서 호남을 정치의 변방으로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은 호남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했고 대구·부산·충청도 등과 대비할 때 호남지역의 절대 다수당 소속으로 지역발전역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1야당으로서 호남정치의 역사성과 실용성을 상실하게 된 주변으로서 문 전 대표가 그 중심에 있었다.

호남의 정치적 결단이 궁금하다

안철수 대표의 호남정치는 점수를 매기자면 과락에 가깝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으로 탈당한 안 대표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졌지만 그는 시작도 전에 호남 민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안 대표는 광주에 혼자 있어야 했다. 탈당피와, 구 동고동 정치인들과, 호남향 우회 임원들과 함께 등장하면서 초장부터 호남에서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 호남 민심이 과거 호남을 지배해왔던, 정확히 표현하자면 호남의 덕을 보았던 옛 사람들의 동원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것은 정치이방인의 시각이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 유권자를 의식, 몇몇 원로 호남정치인을 영입해갔지만 이파리만 뜯겨 나간 호남의 뿌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안 대표가 호남의 민심에 직접, 또 지속적으로 다가갔다면 아마도 광주·전남 정치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이미 윤곽이 잡혔을 것이다.

이번 4·13 총선은 여당과 함께 야당도 정치심판의 대상이 돼버려서 호남의 정치적 결단이 궁금하게 됐다. 오랫동안 쌓여온 야당의 적폐를 깨뜨릴 수 있는 정당만이 호남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야당의 문제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집권과 정치운용을 위해 정치적 색깔이 많이 다른 정당 및 정파들과 연대를 해왔고, 그리고 거듭된 수많은 당권경쟁으로 폐쇄적·패권적 계파정치가 생겨났고 정권교체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정치에 몰입하게 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못하게 되고 유권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야당이 돼버린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중 누가 이런 야당의 오래된 숙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호남 유권자의 고심이 깊게 됐다.

요컨대 호남 유권자는 오랜만에 등장한 호남지역에서의 정당 간 경쟁에 참여하지 말고 명실공히 주권재민의 정치주인으로서 스마트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4월13일은 종이에 한국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한 호남에서 한국정치 개혁을 출발하는 날이 돼야 한다. 호남인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장터임을 알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장)



지난 1987년 11월30일 여의도 유세에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린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는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권교체 희망 싹 틔울 새 인물·새 정치세력 키운다

4·13 총선에서의 역할은?

호남의 정치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됐을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호남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4·13 총선은 야권의 분열 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야권의 텃밭인 호남의 선택이 야권 지지 성향의 전국 유권자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출범으로 새롭게 태어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주도한 국민의당은 호남 표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은 그동안 경제적 낙후와 공공·민간 분야의 심각한 인차차별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정치세력은 이런 호남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의지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히려 '호남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 영남에서 표를 잃는다'며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야권은 각종 선거에서 연패하면서 대선 승리의 희망마저 빼앗아 갔다.

따라서 이번 호남지역 총선은 어느 인물이든 또는 어느 당이든 호남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대에 부응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의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남 총선은 '새시대를 여는 주역'을 뽑는 선거가 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대체할 신진들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야당은 이 같은 유권자의 욕구에 응하는 공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한 정치신인의 등용을 통해 새로운 정치, 혁신 경쟁을 할 것이라 전망이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4일 "이번 총선은 광주 정신을 무시하는 정치인, 대선 승리가 요원할 뿐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면서 선거 후에는 모른체 하는 정치세력, 제 역할을 전혀 못하는 현역 의원 등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남에서 야권에게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은 호남의 한풀이가 아니고 새시대 여는 주역,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성 정치세력이 아얏간 호남의 희망을 다시 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6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383-6400

- 가격은 500만원대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선착순 중, 호수지정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아름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